

보도일자

2019.05.28.(화) 배포 즉시

## 한국기업지배구조원,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 공청회 개최

□ 한국기업지배구조원(원장 조명현)은 5월 28일(화)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「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정책 방안」 공청회를 개최

○ 스투어드십 코드 도입 이래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, 향후 주주활동 및 주주·기업 간 대화의 장으로서 주주총회의 중요성이 부각

○ 그러나 주주총회 개최일의 집중, 촉박한 감사 및 공고 일정, 정보 공개 부족 등으로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개최와 운영이 어려운 문제가 지속

- 이는 주주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, 주주와 기업 간 소통에 장애요인으로 작용

□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·이해관계자·정부 당국자 등을 초청하여 주주총회를 사업보고서 제출 이후 개최하고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

○ 발표자인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주총회의 현실을 짚어보고 주주총회가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

- 상세한 발표 내용은 [별첨 2] 참조

[별첨 1] 공청회 개요 및 프로그램

[별첨 2] “주주총회 내실화를 제도 개선 방안” 요약

※ 담당부서 및 담당자 : 스투어드십 코드 센터 송민경 센터장 (02-6951-3840, mksong@cgs.or.kr)  
스튜어드십 코드 센터 김선민 선임연구원 (02-6951-3902, smkim@cgs.or.kr)

[별첨 1] 공청회 개요 및 프로그램

- 일 시: 2019년 5월 28일(화), 15:00 ~ 17:00
- 장 소: 한국거래소(KRX) 본관 1층, 국제회의장
- 참석대상: 국내 상장사, 기관투자자, 정부 부처 등 담당자, 학계, 언론 등

시간	구분	발표 내용 및 발표자
15:00~15:20	등록	
15:20~15:25	개회사	· 조명현 원장 (한국기업지배구조원)
15:25~15:30	축사	· 정지원 이사장 (한국거래소)
15:30~15:50	주제 발표	<b>“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”</b> 송민경 선임연구위원(한국기업지배구조원)
15:50~15:55	장내 정리	
15:55~16:45	패널 토론	<b>좌장:</b> 박경서 교수 (고려대학교 경영대학) <b>토론자</b> · 광관훈 교수 (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) · 김 춘 실장 (한국상장회사협의회) · 안수현 교수 (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) · 이충희 연구위원 (경제개혁연구소) · 명한석 과장 (법무부 상사법무과) · 안창국 과장 (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)
16:45~16:55	질의/응답	좌중 질의/응답
16:55~17:00	폐회	

## [별첨 2] “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” 요약

### 1. 주주총회의 의의 및 중요성

- 주주총회는 이사회 구성, 회사 지배구조 및 정관 등 핵심 사항에 관한 최고의결기구로서 주주 기업 간 정보 교류, 의견 교환 및 대화의 장이자 경영진을 규율하는 책임경영 수단

### 2. 문제점: 주주총회의 형식화

- 경쟁사의 소집공고가 공개되지 않아 투자대상기업의 상대적 경영성과를 확인하지 못한 탓에 임원 선임, 이사 보수 등 안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어렵고, 주총일 집중, 촉박한 소집공고·감사 일정,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주총일의 지나친 괴리로 인한 공투표 문제(의결권 행사 유인 저하 혹은 행사 왜곡) 등 발생
  - 이는 궁극적으로 사업보고서 제출 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데서 기인
- 다음과 같이 정보 공개가 미흡해 주주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저해
  - 임원 후보의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전체 경력 등 정보 공개 크게 미흡
  - 성과급 비중 등 정보 없이 이사보수 한도 안건만으로는 보상체계 평가가 왜곡될 우려
  - 소집공고 시 감사보고서 미공개로 재무제표·배당 승인 등 안건 판단이 곤란
  - 안건에 대한 찬반 비율 미공개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시장의 평가 확인 불가
- 소액주주의 질의권 제한 등 주주총회의 불공정 운영 사례가 드물지 않게 확인

### 3. 제도 개선 방안

- **소집공고 시 사업보고서·감사보고서를 공개**하게 해 사업보고서일 후 주총 개최 의무화
- **소집공고 기간을 현행 주총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확대**하고, **기준일 설정 가능 기간을 주총 전 현행 3달 이내에서 2달 이내로 축소**하여 공투표 문제를 완화
  - **배당결의 공시 시 그 이후의 날로 기준일**을 정하게 해 “**깜깜이 배당투자**” 문제 극복
  - 배당기준일 관련 상법 해석 등의 모호함은 당분간 정관 변경, 상법 해석 등으로 완화
- 주주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보 공개를 확대
  - 임원 후보의 전체 경력 및 법적 위험 관련 사항, **이사회 전문성 관련 이사회의 설명 (board skills matrix)**
  - **이사보상 정책**을 주주총회 승인 대상에 포함
  - **투표 방식, 질의·발언·집계 절차** 등 주총 운영 관련 정보 (공정한 주총 운영 유도 목적)
  - 의결정족수 충족 지원 등 위해 **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찬반 비율, 투표율 정보 공개**
- **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의무화**하되, 전자투표 시행 시에만 집중일 개최 허용